

체급제한 없는 무한경쟁 '사이버 금융'

사이버 증권이여 banking, 보험, 카드업계로 확산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사이버 증권에 이어 banking, 보험이 본격 서비스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본격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금융권은 80년대는 양적 팽창을, 90년대는 구조조정을, 21세기에는 단연 '인터넷 금융'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서둘러 제품을 출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사이버 금융의 현황과 IT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본다.

■ 박민식 기자

I. 시장 현황

사이버 금융의 대중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00년까지 금융부문 거래의 50%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사이버 주식거래가 전체 주식거래의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40%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젠 금융권에 미치는 인터넷의 위력을 전망하는 이런 자료는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이미 사이버 금융의 위력을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주식을 거래하고,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는 일은 이젠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의 엄청난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업체는 더욱 고객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를 다시 낮추어 가는 순환 효과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최대 호황 속 시스템 재구축 증대

사이버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증권업계이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사이버 트레이딩은 그 폭발력을 감안할 때 성장세를 예측하기가 불가능 할 정도이다. 지난해 전체 주식거래가 시장의 10% 미만에서 지난 8월에는 30%에 육박했으며, 전체 주식거래대금 1백95조1천2백98억원 중 56조6천1백99억원이 사이버 거래를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사이버 거래에 집중 투자하는 세종증권은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증권사인 LG증권도 50% 정도가 인터넷 및 PC 통신을 통해 거래되었다.

이처럼 삼성, LG, 대신같은 대형 증권사와 사이버 거래에 집중 투자하는 소형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이들간의 경쟁은 온라인 거래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PC통신 및 인터넷에는 "사이버 증권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증권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증권사의 사이버주식투자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주문이 폭주할 때는 주식시장이 개장된 뒤 몇시간동안 접속이 안되는 것은 물론 접속이 되더라도 매매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다"며 집단적인 불만의 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용고객의 불만은 시스템에 대한 증설 요구를 더욱 증폭시켜 각 증권사별로 대대적인 시스템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관련 IT업계는 사이버 증권 특수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사이버증권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홈트레이딩, 웹트레이딩, 인터넷 트레이딩 서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증권사들의 사이버 증권에 힘입어 최근 들어 사이버 영업만 하는 증권사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통신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다우기술과 한국종합기술금융(KTB), 나래이동통신, 테라 등이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시장에 변화에 한국IBM, 한국HP, 한국컴팩 등 주요 중대형 IT업체들은 기존 시스템을 증설, 교체하려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략을 하고 있다.

한국IBM은 기존 사이버 트레이딩 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웹트레이딩 서버 및 인터넷 트레이딩 서버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HP는 기존 고객 증권사의 증설 물량 공급 및 유지보수에 주력하는 한편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공급과 홈트레이딩, 웹트레이딩 서버 솔루션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컴팩,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한국후지쯔, 한국유니시스 등 대부분의 중대형 컴퓨터업체들

이 증권사 재구조 시스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은행업계

시행 3개월만에 급속히 확산

데이터퀘스트에 따르면 2004년에는 미국의 온라인 뱅킹 이용 인구가 약 57%인 1천3백70만 가수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뱅킹은 아직 사이버 증권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 규모를 훨씬 추월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 뱅킹 형태는 한국통신의 가상은행 서비스인 '뱅크21C'에 참여하는 경우와 은행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은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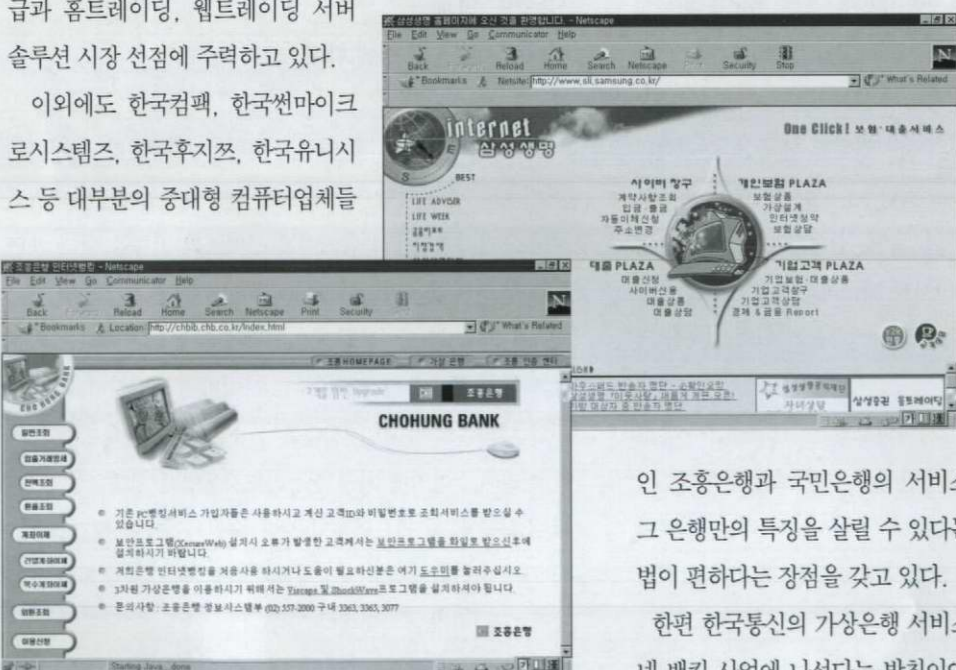
한국통신 인터넷 가상 은행이란 한국통신이 시중 은행과 공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 개설한 것으로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 위치한 은행이다. 은행창구가 아닌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국통신이 은행들과 공동으로 선보인 것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가상은행은 개별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은행간 자금 이동이 매우 수월하다는 편의성을 갖고 있다"며, 이곳에서 금융거래를 하

기 위해서는 전자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전자통장 사용자는 최근 이용자가 1만3천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발급 건수가 500건에 이르러 연말까지는 10만 고객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인터넷 뱅킹인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의 서비스는 한국통신 서비스보다 그 은행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다는 것과 신청절차와 사용방법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의 가상은행 서비스와 맞물려 데이콤도 인터넷 뱅킹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통신 업계의 라이벌이 사이버 금융 시장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릴 전망이다.



<그림 1> 급속히 변화하는 사이버 금융 사이트들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서비스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한국통신 서비스는 이용자가 한국통신 가상은행 사이트나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반면 데이콤은 자사 사이트에서 원하는 거래를 선택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데이콤 관계자는 "데이콤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국내 은행 및 보험, 증권사 등을 연결해 서로 다른 금융권간에 계좌 이체 및 조회 등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쇼핑몰과 연계,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결제를 대행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데이콤의 계획에 따라 한국통신도 현재 은행권만을 연계한 서비스를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을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업계

사이버 시장 매년 100% 이상 성장

그동안 증권이나 은행에 비해 정보화의 후순위로 인식돼온 보험업계가 인터넷을 앞세운 사이버 대열에 과감히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반 홈페이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인터넷만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사이버보험사도 탄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보험시장 주도권 장악에 나서고 있으며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사이버보험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을 필두로 교보, 국민 등 생보업계, 제일, 국제, 삼성화재 등 자동차 및 손보업계에서도 기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가 하면 전용몰을 구축하는 등 달라진 보험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이버보험은 특히 보험사와 고객의 일대일 거래행위라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에 비해 3~6%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보험사로 파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이버 고객을 잡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보험정보를 전해주고 보험가입도 받는 쌍



방향 서비스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다른 사이트 및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도 활발히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험 시장의 거래는 가속도를 더해가면서 매년 100%이상 성장할 것"이며 "사이버 증권, 뱅킹에 이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신용카드 업계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 확대

카드업계 역시 인터넷 열풍에 예외일 수는 없다. 삼성카드를 비롯해 LG캐피탈,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업체들은 대고객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홈페이지 서비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인터넷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인터넷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회원과 개맹점을 연결해주는 사이버 중개시장의 확대 요구와 네티즌의 주류인 20대를 신규 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여기에 최근 신용카드사용업체 확대, 카드이용액 소득공제 등 카드업계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됨으로써 카드사들이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적극 적극적으로 인터넷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는 업체는 삼성카드를 올해 안으로 100억원을 투자, 이용실적과 입

국내역 조치는 물론 개인별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이버론까지 개발하고 있다.

한편 LG캐피탈은 최근 사이버 영업팀을 발족시켜 카드영업팀과 국제업무팀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인터넷관련 업무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원모집과 상담, 가맹점과 고객을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금융상품의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카드는 통신판매제품을 중심으로 한 쇼핑몰을 구축했고 한국신용평가가 제공하는 기업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은행사와 할인쿠폰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인터넷 회원모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이버지점까지 개설 할 방침이다.

보안업체 최대 특수

업계 전문가는 "인터넷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이 허술한데 따른 금융사고로 해커가 사이버 금융 기관에 침투해 돈을 훔치거나 고객정보를 빼낼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금융, 증권 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국내 방화벽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가상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이 전면 중단돼 이용자들로서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며 회

사 신용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100%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이버 시대를 맞이한 금융기관들이 필수 요건이다.

보안솔루션 제품을 크게 분류해 보면 암호인증 사업과 보안 S/W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암호인증 분야에서는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을 수주한 소프트포럼과 신한은행, 제일은행을 수주한 이니시스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보안S/W 분야는 시큐어소프트가 인터넷 뱅킹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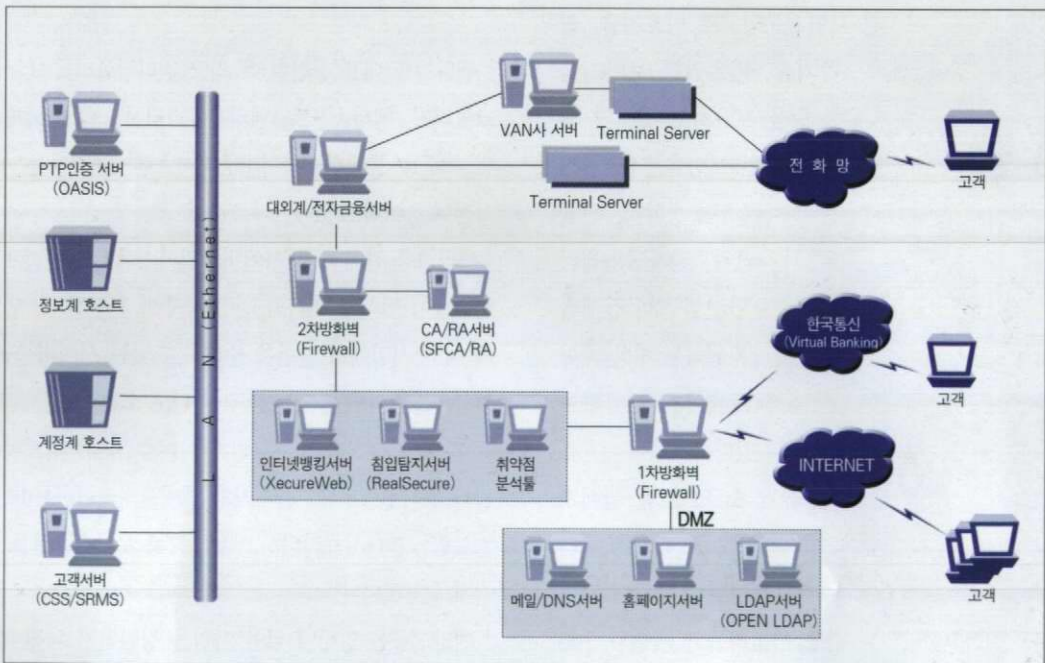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금융 기관의 사이버 뱅킹,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증가에 따라 방화벽 수요도 늘어나 전체 시장 규모는 당초예상보다 증가한 3백억대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I. 업체동향

● 보안업체

시큐어소프트

시큐어소프트(대표 김홍선)는 사이버 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뱅킹 보안 S/W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시큐어소프트의 제품은 침입차단시스템(F/W), 해킹패턴을 감



〈그림 2〉 사이버 금융의 핵심인 '보안' 네트워크 구조도

지하여 세션을 중지시키는 침입탐지시스템(IDS),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발견과 대처방안의 리포팅 기능을 수행하는 취약점 분석 툴(Scanner)로 분류할 수 있다.

시큐어소프트의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구축시 보안솔루션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며 "올해 초 국민은행에 구축된 사례가 타 은행에 영향을 미쳐 제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큐어소프트의 올해 매출목표는 공공부분을 포함해 약 1백20억원의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올 초에는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1백억원 수준의 목표를 세웠으나 인터넷 뱅킹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시큐어소프트는 국민은행을 시초로 조흥은행, 한빛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대규모 시중은행 10여 개의 인터넷 뱅킹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웹 개발업체, 시스템 공급업체, 보안 솔루션 업체 등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화은행과 라이코스, 국민은행과 야후 코리아, 조흥은행과 인터파크, 한빛은행과 삼성쇼핑몰, 하나은행과 한솔 CS Club이 제휴를 통한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소프트포럼

소프트포럼(대표 안창준)은 사이버증권 보안전문업체로 암호기술, 인증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웹 관련 보안솔루션, 일회용 암호생성기, 인증기관, 전자상거래의 안전한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지불 게이트웨이를 공급하고 있다.

소프트포럼 관계자는 "소프트포럼은 특히 데이터보안의 근간이 되는

각종 알고리즘의 개발과 160비트 이상의 첨단 암호모듈을 구현

한 것으로 유명하다"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상거래의 핵심이 되는 인증기술을 개발,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회용 암호생성기인 윈스ID를 개발한 것도 국내 처음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소프트포럼의 대표적인 제품은 'XecureWeb'으로 웹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뱅킹 혹은 사이버주식거래를 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해주는 것으로 상업적인 용도의 보안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증기관(SFCA)에서는 X.509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데이터베이스(DB)상에서 인증서 관리를 수행한다. SFCA는 온라인, 오프라인, 소켓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모두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는 일회용 암호생성기와 서버(OASIS), 지불시스템, 기업용 토털 보안솔루션(SSO), 웹뱅킹 서비스 시스템(SWS) 등 암호화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 등의 인증 분야 제품을 공급하면서 영업을 활기를 띄고 있다.

● 개발 및 솔루션 업체

펜타그룹

사이버증권시스템 출시

펜타그룹(대표 정진현)은 최근 펜타컴퓨터,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 펜타소프트,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등 4개 계열사의 제품을 통합한 '사이버증권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펜타그룹 관계자는 "사이버증권시스템은 기존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증권사 전산시스템으로 현재 여러 기업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펜타소프트의 사이버증권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와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의 웹애플리케이션서버인 '실버스트림',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각종 보안솔루션을 묶어 패키지화한 것이다.

펜타그룹은 인터넷 금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를 망라한 전자금융사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각 계열사의 시너



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토털 패키지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썬·지오이커뮤니케이션

인터넷뱅킹 통합솔루션 공동 영업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대표 폴 히퍼)와 बैं킹서버 전문 업체인 지오이커뮤니케이션(대표 민태홍)은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더불어 금융권 인터넷 बैं킹 시스템 시장을 위한 통합솔루션을 확보하고 공동 영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썬은 자사 금융아키텍처인 '썬넥트'를 제공하고 지오이커뮤니케이션은 자바 기반의 인터넷 बैं킹서버인 'VCS',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공개키기반구조(PKI)에 근거한 암호화 및 인증시스템을 각각 지원, 통합 인터넷뱅킹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지오이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솔루션인 VCS는 은행의 웹 서버와 연동, 인터넷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로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기능과 외부로부터의 보안을 위한 외부 접속자의 세션관리 기능을 통합한 제품이다.

한국통신

인터넷 बैं킹 전담반 운영

한국통신은 인터넷 बैं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금융을 전담하는 사내기업인 '한국통신 커머스 솔루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서비스의 기획에서 개발, 운용, 마케팅을 전담하는 이 사내기업은 지금까지 모두 28개 은행과 가상은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 7월부터 17개 은행과 함께 홈페이지(<http://www.banktown.com>)에서 가상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송금과 직불서비스, 무선 인터넷을 통한 PCS뱅킹 서비스가 추진할 예정"이라며, "증권과 보험, 투신, 카드업무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인터넷 쇼핑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대형 벤더

전자상거래 우위로 시장 공략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차세대 금융패키지인 'e-Bank' 솔루션을 개발 은행의 차세대 시스템 시장공략에 나선 것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솔루션인 '골드다이렉트',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인 '사이버브랜치시스템(CBS)'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골드다이렉트'를 국민은행에 공급한 데 이어 증권거래시스템을 LG증권, 대신증권, 서울증권, SK증권에 공급했다. 올해 아웃소싱을 제외한 금융시장에서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HP(대표 최준근)는 최근 신한은행에 웹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인터넷뱅킹 업무를 수주,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작업은 기존 PC뱅킹 업무와는 다른 포털서비스 개념을 도입, 인터넷을 통한 여, 수신 업무는 물론 콜센터 통합, 카드, 증권, 보험을 연계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은행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HP는 인터넷관련 전용서버인 'N클래스' 등 하드웨어와 웹큐오에스(Web Qos), 웹로직, 브로드비전 등 다양한 인터넷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유니시스(대표 조완해)는 은행의 계정계 차세대 시스템인 XIS(eXtended Information System)를 비롯해 영업점 통합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 각종 금융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을 위해 인터넷뱅킹 솔루션인 'XIS 웹넷', '넷 뱅커'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한국오라클(대표 강병제)은 은행의 정보계시스템의 재구축과 관련해서 관리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위험관리와 종합수익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종합금융 패키지인 'OFSA'를 공급하고 있다. 증권분야에서 계정계시스템 다운사이징,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 도입, 고객관리시스템을 위한 DW구축, 보험분야에서는 DW 및 연금관리솔루션, 투신사의 DW, ERP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사업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금융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통합업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